

장성농업대학, 전문인 양성기관 '우뚛'

농진청 운영평가서 대상 등 2년 연속 높은 평가
여성 참여 등 호평...2008년 이후 1,477명 수료

장성미래농업대학이 올해 농촌진흥청의 전국 농업인대학 운영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난해 평가에서는 대상을 수상,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인대학 운영평가는 농촌진흥청이 농업인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했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의 농업인대학을 평가한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여성농업인 참여 비율과 이수율, 교육생 만족도 및 사후관리, 기술수준 향상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장성군은 지난 2008년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소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농업대학을 출범시켰다. '배움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는 슬로

건 아래 현장 중심의 농업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는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해 약용작물학과와 먹거리유통학과를 운영했다. 약용작물학과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웰빙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반영해 개설했다. 장성군은 약용작물학과 학생들을 힐링약용단지 조성사업 대상자와 연결하고 집중적인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 교육생들이 약용작물재배 전문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약용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약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외이와 계약도 체결했다. 먹거리유통학과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올해 처음 신설한 학과다. 생산-유통-판매로 이어지는 로컬푸드 순환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최근 군 농업인회관에서 1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12기 장성미래대학에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졸업생 83명이 학사모를 썼다. /장성군 제공

방안을 교육해 '마케팅 전문 농업인'을 양성했다. 장성군이 추진 중인 푸드플랜과 직거래장터 사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부자농촌의 꿈은 '공부하는 농업인' 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처음 추진했던 미래농업대학이 어느덧 12기 졸업식으로 이어졌다"며 "10년여 만에 전국 최고의 농업인 교육 기관으로 입지를 굳힌 만큼 졸업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영농지식을 널리 전파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부자농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미래농업대학 12기 졸업식에서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졸업생 83명이 학사모를 썼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개교 이후 총 1,477명의 농업 전문자를 배출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광 '패류자원 복원' 나선다

백합·동죽·참꼬막 등 적지조사...최적 품종 방류

영광군이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백합·동죽·참꼬막 등 패류자원 복원에 나선다. 영광군은 5일 "내년에 연안갯벌 어촌계 12개 어장을 대상으로 패류자원 적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 서식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어장별 바다 저질과 수온 등 해양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패류 품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광군의 갯벌은 전남지역 갯벌의 13.9%에 해당되는 145.5km에 이른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남해안지역 패류 품종이 북상해 자생할 정도로 번식·서식 환경이 변해 패류 생산량이

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지역 갯벌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남도 백합 위판장'이 설치될 정도로 생산력이 뛰어났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와 방조제 축조 등 영향으로 갯벌 환경이 악화되면서 매년 백합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패류 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응에 나선 영광군은 패류자원 적지조사 등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어장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통해 지역 어촌계에 적합한 패류 품종을 찾아 방류사업 등과 연계해 자원 복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화순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속도

대책회의 열고 부진사업 등 논의

화순군은 최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공사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책회의에는 읍·면 시설직 공무원과 공사 현장 소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속 집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19년 하반기 신속 집행 7대 개선 사항 공유와 함께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최근 대내·외 경기 불안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 대응하고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정 신속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길 화순군 건설과장은 5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부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나주시청 사이클팀 최강 명성회복 나섰다

장선희 감독 선임 재정비
"선수 육성·관리에 최우선"

나주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코치진을 재정비하고 최강팀 명성회복에 나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이클팀 새 감독에 장선희씨(44·여)를, 신임코치에 서석규씨(36)를 각각 선임했다. 신임 감독은 지난 28년 간 사이클팀을 이끌었던 양재환 감독이 지난 7월 퇴임하면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오다 정식감독으로 임용돼 사이클팀 최강팀 명성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장 감독은 지난 2009년 나주시청 사이클팀 코치로 인연을 맺었고, 제97회 전국체전 사이클 스크래치 부문 우승, 제99회 전국체전 동일 부문 준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팀 코치로 참가,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로 한국 여자대표팀이 종목 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지난해 최고의 여성체육인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을 수상했다.



나주시가 사이클팀 새 감독에 장선희씨(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를 선임하는 등 최강팀 명성회복에 나섰다. /나주시제공

장 감독은 "양재환 감독의 뒤를 이어 나주시청 사이클팀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경기 성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새로운 다짐을 통해 나주시청이 다시 전국 최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치진과 함께 선수육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감독과 호흡을 맞출 서석규 코치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4년까지 선수로 활동하다 2016년부터 나주시중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나주시청 사이클팀을 지도해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학생사이클대회 여자 중부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해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인규 시장은 "장 감독은 한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4관왕을 차지했던 다시엔 출신 나이름 선수를 확장시절 지도했고, 양재환 전 감독과 함께 나주시청 사이클팀을 명문 반열에 올려놓은 실력과 경력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라며 "코치, 선수들과의 조화를 통해 사이클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준 기자

함평 규제혁신평가 전남지사 기관표창

적극행정 통한 애로사항 해결
규제개혁 체감도 대폭 향상

함평군은 5일 "전남도가 실시한 '2019 규제혁신 우수·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함평군은 전남도가 평가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건수 등 6개 지표 모두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이번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건수와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 등을 평가하는 2개 항목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아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일자리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군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9일 진도 솔비치호텔에서 열린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장동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장흥군 장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는 85세 이상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생신상 어르신들은 11월부터 12월 출생자로 가족이 없거나, 사정상 생신을 혼자 보내게 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과 부녀회 회원들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미역국과

떡, 나물 반찬 등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안부를 살폈다. 이순금 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적적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재 지사협 위원장은 "방문형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누락을 예방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장동면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유현 기자



함평 인재양성기금 잇따라 기탁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이 지역민의 동참 속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대동면에 소재한 향교주산학원 조선희 원장이 인재양성기금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유니세프 함평군후원회와 (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에서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장학금을 군에 기탁

했다. 특히 조선희 원장은 오는 2021년까지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지역인재양성기금을 군에 기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은 "재능 있는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간담회

영광군은 최근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설 명절을 맞아 영광사랑상품권 환인한도가 10%로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상품권 부정구매·부정유통 사례 안내와 행정처분을 설명해 상품권 구매할 때 철저한 신분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점 지

정을 취소하고 세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을 통해 얻어진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일일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행정망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상품권을 구매할 때 철저한 신분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영광·곽용순 기자